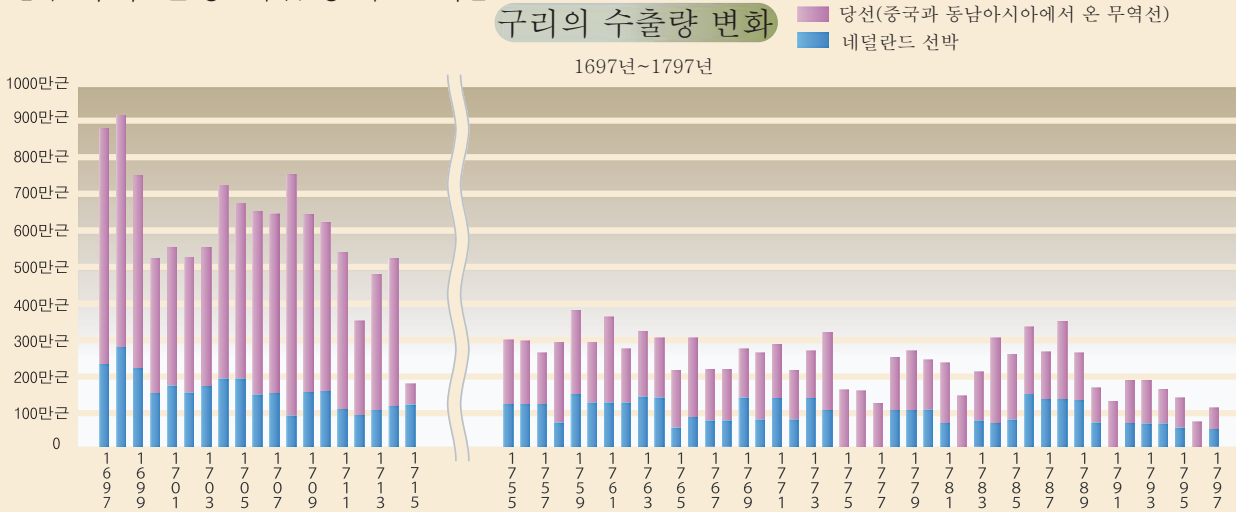


활기를 띤 중국과의 무역 (상거래와 무역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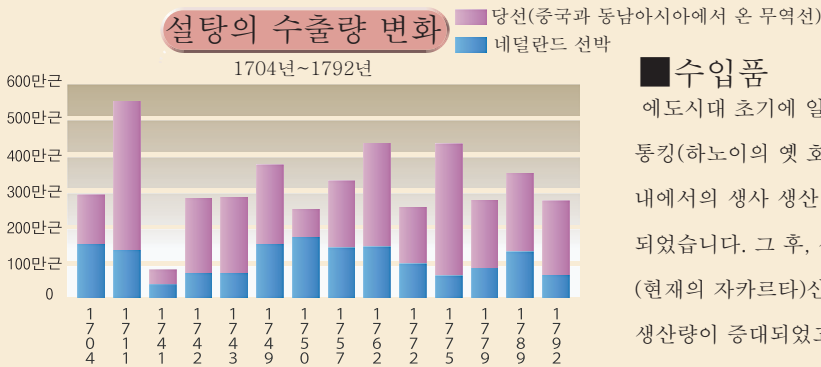
【구리와 설탕 취급량의 변화】

구리의 수출량 변화



자료제공: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설탕의 수출량 변화



■ 수입품

에도시대 초기에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주요 품목은 뽕과 통킹(하노이의 옛 호칭)산 생사(生糸)였지만, 18세기 초에는 일본 내에서의 생사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입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생사를 대신하여 수입하게 된 것이 바타비아(현재의 자카르타)산 설탕이었습니다. 당시 바타비아에서는 설탕 생산량이 증대되었고, 중국은 이것을 사들여 대량으로 일본에 들여왔습니다. 그 밖에도 소방목을 비롯한 약재와 비단이나 옥양목 등의 직물, 서적, 유리제품 등을 수입했습니다.

■ 수출품

일본은 주로 은을 수출했습니다.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기에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고품질의 은을 생산하는 나라였습니다. 은과 함께 금화도 수출했지만, 당시의 금화인 겐로쿠 엽전은 품질이 좋지 않았기에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금과 은을 대신해서 주요 수출품이 된 것은 구리와 다와라모노(俵物)였습니다. 다와라모노란 조린 해삼과 말린 전복, 상어 지느러미 등의 해산물을 짚 가마니에 넣은 것을 말합니다. 이 밖에도 방충제 등에 쓰이는 장뇌(樟腦)와 해산물, 도자기, 칠기 제품, 구리제품 등이 활발히 수출되었습니다.

■ 동괴(棹銅)와 동괴상자

초기에는 무역에서 은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이후에 은의 수출이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은을 대신하여 구리를 수출하게 되었고, 1690년에 이후에는 구리가 주요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결제에 사용된 구리는 동괴(棹銅) 형태로 오사카에서 만들어져 나가사키로 옮겨졌습니다. 동괴는 길이 약 21cm에 폭이 약 2cm 정도 되는 작은 크기로 100근(약 60kg) 씩 나무 상자 담아 수출되었습니다.



100근의 동괴(棹銅)가 들어있는 나무 상자(복제품)
동괴의 길이 약 21cm, 폭 약 2cm 나가사키시 교육위원회 소장



동괴(棹銅)
길이 약 75cm, 넓이 약 3cm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